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13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도 4-H본부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8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도 4-H본부 제7·8대 회장 이·취임식… 현웅택 회장 취임-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12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소통 간담회-9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고된 마늘 농작업은 ‘기계화’로 해결-14면(송상철)	서부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양파 가격 보전 기준에 제주 특성 반영해야” -6면	-	뉴제주일보
○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예정-1면	-	제주일보
○	유채나물 수확-4면	-	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제주도 4-H본부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8면

제주도 4-H본부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신임회장 현웅택)는 3월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7대·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현웅택 신임회장은



은 “임기 중 전국 도매시장 및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와 판매를 돕고자 한다”며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는 4-H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3.

뉴제주일보 9

(제민일보: 2024년 3월 13일)

○ 제주도 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9면



제주도 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제주도 4-H본부(회장 현웅택)는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현웅택 신임회장은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H본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13.

제민일보 9

(제주매일: 2024년 3월 13일)

○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13면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제주도4-H본부는 지난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회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제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3.13.
제주매일 13

(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道 4-H본부 제7·8대 회장 이·취임식... 현웅택 회장 취임-9면

道 4-H본부 제7·8대 회장 이·취임식...현웅택 회장 취임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회장 장석진)는 지난 11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7대·제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고상한 제주도농업기술원장,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 김성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부분부장 등 각계 인사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출범하는 회장단을 격려했다.

현웅택 신임회장은 “임기 중 전국 도매시장과 유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와 판매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는 지난 1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제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를 지원하는 등 회원과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4-H본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제8대 회장단 명단

▲회장=현웅택 ▲수석부회

장=김순선 ▲부회장=김창주, 김승삼, 이동은, 이승훈, 김창민, 고성봉 ▲여성부회장=장여선 ▲감사=이석훈

3.13.
제주일보 9

(한라일보: 2024년 3월 13일)

○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12면



제주도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는 지난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고상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김한규 국회의원, 이정엽 제주자치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제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3.13.
한라일보 12

(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소통 간담회-9면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소통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승현)는 지난 8일 구좌읍 이장단협의회 (회장 이영태) 등과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3.13.
제주일보 9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기고] 고된 마늘 농작업은 ‘기계화’로 해결-14면

고된 마늘 농작업은 ‘기계화’로 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산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2% 감소했고, 특히 제주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1%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부지역 대표 작물인 마늘의 재배면적 감소는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업 인구 고령화 및 인력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늘을 재배하는 대신 양배추, 월동무 등으로 재배작물을 바꾸면서 매년 월동채소 수급 관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늘 농작업 중 발갈이와 방제 작업은 대부분 기계화돼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파종과 수확 작업은 기계화율이 저조한 편이다. 마늘을 기계로 파종할 경우 인건비를 85.3% 절감할 수 있고 기계 수확 시에는 노동



송상철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화팀장

시간이 76% 감소하는 등 농작업 기계화율이 향상되면 마늘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높은 인건비가 절감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늘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농협 및 작목반 등 5개 생산자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파종에서 수확, 건조까지의 모든 기계화 장비를 5년간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에서는 장비를 직접 운용하며 인근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기계화율을 차츰 높여나갈 계획이다.

3.13.
뉴제주일보 14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양파 가격 보전 기준에 제주 특성 반영해야” -6면

“양파 가격 보전 기준에 제주 특성 반영돼야”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제주 양파 생산자단체가 가격 보전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회장 오창용)는 12일 대정농협에서 열린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양파 수입으로 양파의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설정했던 농산물 수급관리 위기단계별 가격 기준을 시장 가격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수입 확대·농업 포기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출하비, 경영비, 생산비, 적정마진 등을 고려해 설정하던 위기단계별 가격 3.13.13.13 방식을 ‘평년 가격’으로 변경했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하락심각·하락경계·하락주의·안정대·상승주의·상승경계·상승심각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단계에 따라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구조다.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기준 가격이 설정되면 경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양파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산 조생양파의 경영비는 kg당 360원으로 전국 양파 경영비보다 41% 높다.

정부는 기준가격을 매년 최신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나 생산자단체는 상품의 평년 가격을 수급대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농산물 수급관리 단계 설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배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하락 단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제주산 양파



12일 대정농협에서 제주 조생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는 다른 지역과 출하 시기가 구분되고 물류비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데도 이런 현실이 현행 가이드라인 산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국내 신선 양파 수입량은 2022년산 10만 1013t, 2023년산 7만1886t으로 각각 평년(3만6935t)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 2월 상순 양파 도매가격 또한 수입산이 1kg당 1290원으로 국내산(1150원)을 앞질렀고 지난해 중순에

도 수입산이 kg당 1290원, 국내산이 kg당 1240원에 거래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중국산 양파가 국내산보다 낮은 9월부터 수확되면서 국내산 저장 양파에 비해 신선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물량이 늘면서 업체들의 거부감이 줄었고 고정 수요처가 생기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예정-1면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예정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쯤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회 3.13.13.13 회의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추천을 받고, 추천받

은 6명을 포함해 7명을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정엽(행자위), 이경심(보건복지위), 임정은(환경도시위), 홍인숙(문화관광체육위), 고태민(농수축경제위), 고의숙(교육위), 박호형(의장 추천) 의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강재병 기자

(제주일보: 2024년 3월 13일)

○ 유채나물 수확-4면



3.13.
제주일보 4

유채나물 수확

12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농민들이 유채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